전혜린·전태일…시대와 불화한 청년들 그들이 멈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읽기

박숙자 지음

1960년대 후반, 교단에 첫발을 내디딘 김용택 시인은 학교로 찾아온 책 장사에게서 문학전집을 월부로 구입했다.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문학의 세계에 눈을 떴다. 196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이 6000원 남짓했는데, 1965년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60권)은 2만5000원 이었다. 월급의 4배가 넘는 비싼 '문화상품'이었다. 그럼에도 집집마다 문학전집과 위인전 전집을 장만할 정도로 붐이 일었다.

이와 반대로 1975년 2월 나온 200원 균일가의 삼중당 문고(100권)는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 자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문고는 "그 시절 청년들의 서재를 이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박숙자 경기대 교수가 최근 펴낸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책읽기'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청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본다. '삼중당 문고 세대의 독서 문화사'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저자는 최인훈 소설 '광장'의 주인공 준, 김승옥 소설 '환상수첩'의 정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을 쓴 여성 번역가 전혜린, 청계천 피복노조 노동자 전태일 등 시대와 불화(不和)한 4명의 청년을 주목한다.

전혜린

전태일

'국가, 난민-준', '대학생, 가만히 있어라-정우', '여성, 한국적 현실-혜린', '소년, 법과 밥-태일' 등 각 인물을 소개하는 부제목에서는 저자가 각 인물을 통해 다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저자는 "청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읽고 생각하며 살아갔는지 조명하고자 했다"며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이다"고 말한다.

책은 단순히 '독서 문화사'를 다룬 게 아니다. 한국에 처음 등장한 시발택시, 불꽃같았던 4·19와 반동으로 몰아친 5·16 쿠데타, 무관심이 낳은 비극 무등산 타잔, 여차장 인권 소동, 식구인듯 식구가 아닌 식모, 애국조회와 제식 훈련 등 당시 시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현대사와 생활사까지 함께 보여준다.

제3국으로 보내지는 배에서 "어느 국가도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고뇌하는 명준을 비롯해 4명의 인물은 시대를 헤쳐나가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 "내가 원소로 환원하지 않도록 도와줘"라고 한 전혜린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은 당시의 아픈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청년들이 멈춘 그 지점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홀로 남았던 명준의 광장은 수많은 자들이 같이 손잡는 '광장'으로, 정우가 되물었던 양심있는 소설에 대한 물음은 '문학'으로, 혜린이 멈춰섰던 번역할 수 없는 세계는 읽혀지는 세계로, 태일의 외침은 민중으로서의 인간을 발견하는 광장으로 이어졌다."

〈푸른역사·1만49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더불어 살아가는 법 배우고 더 넓은 세상 만났어요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임하영 지음

여섯 살 때 유치원을 그만 둔 하영이는 이후 단 하루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땐 교회 회지에 '동물농장'과 이명박 정권을 연결짓는 독후감을 써냈다. 열 네살 부터는 매일 도서관에 다니며 하워드 진, 노엄 촘스키, 홍세화, 박노자 등을 스승으로 삼았다. 독후감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모아 여행을 다녔고, 전 재산 50만원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40% 수익률을 남겼다.

열 여섯 살 때 전태일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고 성공회대에서 김수행 교수의 '정치 경제학'을 청강했다. 당시 청강을 권유했던 김홍열 교수의 수업 '과학기술의 사회학'을 들었고, "수업 내용은 다 까먹어도 좋으니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짚어내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현상만을 바라보면 안되고 맥락을 봐야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열 여덟엔 바이올린 하나 들고 길거리 연주를 하며 88일간 유럽여행을 떠났고 '한겨레 신문'에 "대통령 아버지'는 이만 놓아주세요'라는 칼럼을 실었다.

18세 청년 임하영이 쓴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은 공부란 무엇인지, 배움이란 무엇인지 물음이 생길 때마다 길을 나서 해답을 찾곤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사람을 만나며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배우며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이야기다.

한 때 '유럽 공동체 삶'을 꿈꾸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한 그는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더 한층 깊은 지혜를 얻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도 혼돈의 시절은 있었다. '차라리 학교에 다녔으면 어땠을까' 고민에 빠졌을 때 그는 홍세화에게 메일을 띄웠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게 됐다. "불안과 좌절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지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마땅히 걸어가야할 길을 걷겠다. 그 불씨를 살려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변화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천년의 상상·1만4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버라이어티=간결하고 담백한 문장, 촌철살인의 유머, 삶의 아이러니를 그려온 오쿠다 히데오의 스페셜 작품집. '이라부 시리즈'를 통해 인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힌 후,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던 시기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한 단편 6편과 콩트 1편, 대담 2편을 한데 엮은 작품집으로 오쿠다 히데오의 정수가 오롯이 담긴 책이다. 〈현대문학·1만4000원〉

▲열공 우리말=50만여 어휘가 수록돼 있는 국어 사전과 달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3000 단어 수준에 불과하다. 영어는 1만 단어, 프랑스어는 3만 단어가 일상어휘로 쓰이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빈약한 어휘력이 국어의 풍요로움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짐작 가능하다. 책은 우리말에 대한 13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1000여 표제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그 표제어와 연관된 1만2000여 단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명한다.

〈원더박스·2만5000원〉

▲냉철한 그리고 분노하는=지혜의 정원에 신과 악마, 인류 정신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지혜의 신에게 지상 세계의 고뇌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상의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책은 시간의 계곡을 넘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2500년 인류 정신의 메시지다. 69인의 인류 정신, 여섯 악마와 지혜의 신들이 어지러운 시대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끈다. 〈자유정신사·1만2000원〉

▲비행기 구조 교과서=30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이 집필한 항공 교양서. 일반인이 항공 학교나 비행 전문 기관에 진학하지 않아도 비행기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트 엔진, 운항 시스템, 착륙 장치 등 항공과학의 결정체를 이해하는 100가지 핵심 지식이 담겼다. 정확한 설명과 일러스트가 더해져 평소 비행기의 구조와 원리가 궁금한 이들이라면 반가워할 책이다. 〈보누스·1만3800원〉

▲전진하는 페미니즘=미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이자 비판 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가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을 추적하고 앞으로의 단계에 대한 전망을 고찰한 책.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기존 좌파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맹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좌파 정치 측면에서는 복지국가가 지녔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페미니즘 측면에선 1989년 이후 문화주의로 선회하면서 신자유주의와 공모하게 된 딜레마를 성찰한다.

〈돌베개·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비주얼 과학=생물학, 화학, 물리학의 개념 이해를 돕는 책. 시각적 자료를 통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이들이 쉽게 과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데 애를 먹고 있는 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다.

〈청어람미디어·2만1800원〉

▲바로 그 신발=가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간결한 글과 서정적인 그림으로 정감있게 풀어내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제레미는 모든 친구들이 신고있는 유명 상표 운동화를 신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겨우 중고가게에서 신발을 구입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레미 발에는 너무 작기만 하다.

〈지양사·1만1000원〉

▲가짜 블로거=인터넷 사회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변신을 꿈꾸는 에바의 이야기를 다룬 청소년 소설. 에바는 현실 세계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내며 공부밖에 모른 채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에바는 '훌리아 에스파다'라는 이름을 지어내 페이스북에 등록한 후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 〈별숲·1만원〉

▲추리탐정학교 1,2=초등생에 맞춘 추리탐정동화. 주인공 세 어린이는 특별활동 시간에 탐정 수업에 들어가 사설탐정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한다. 단서를 찾아내고, 용의자에게 질문하여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운다.책을 읽으며 추론과 추리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좋은꿈·각 권 1만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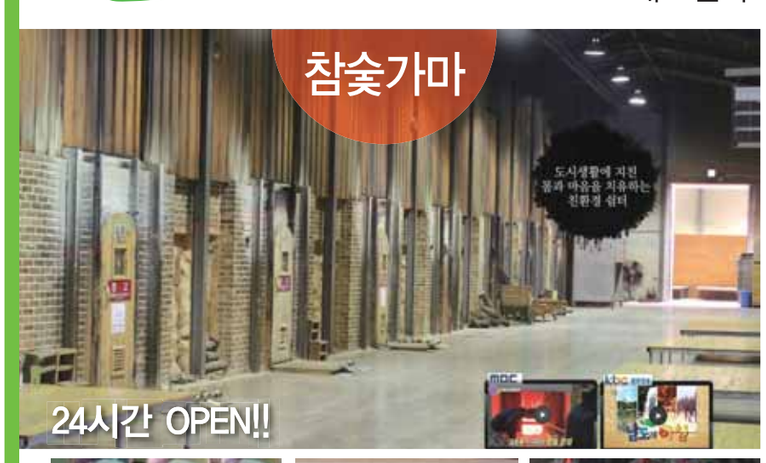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